

SONG JAE HO

6 June - 11 July 2009



Tonsorial, Acrylic on canvas, 80.3 x 100 cm, 2008

송재호의 'Tonsorial'

송재호는 사적이고 은밀한 기억과 경험에서 만들어진 감정들을 혼자만의 것으로 저장하지 않고 은유적인 방법으로 캔버스 위에 노출시킨다. 작가의 섬세한 감정은 화면 안에서 절제된 붓터치와 감각적인 색채를 통해 그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들어내며 새로운 시공간은 창출하고 있다.

송재호는 그림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는 않는다. 자신의 머리속에 그려지는 정형화되지 않은 이미지들을 화면에 옮길 뿐이다.

그는 그레이 혹은 핑크, 블루 등 연한 컬러를 위주로 작업해 애매하고 모호한 감정의 미묘한 느낌을 표현한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은 알 수 없는 여운을 남긴다.

화가는 자신을 '인상주의자'(Impressionist)라고 한다.

아이엠아트(02-3446-3766)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